

불교 지옥의 문화 콘텐츠적 변화

: 기억과 망각,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이 필 원*

1. 들어가기
2. 문화 콘텐츠로서 인도불교 지옥관의 한국적 수용과 변용
3. 망각된 지옥과 기억된 지옥
4. 결론

■ 한글요약

지옥은 사후세계의 하나이다. 또 다른 사후세계는 천국이다. 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둘은 확정적 공간이 된다. 이것은 곧 선악에 대한 관점과도 연결된다. 불교 지옥의 시왕과 옥졸들은 악마와는 다른 캐릭터이다. 하지만 기독교 지옥의 사탄과 그 무리들은 절대악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념이 중요한 것은 그 관념이 그대로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투영되어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 한국사회는 선과 악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도 전통적 한과 해원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과 한과 보복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치의 혼돈 혹은 미정립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전통문화는 ‘한류’라는 방식으로 토대를 구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서양문화가 ‘한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옥을 테마로 한 한류콘텐츠의 가능성은 ‘선악’의 구도가 아닌 ‘한과 해원’의 구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과 해원’은 불건전한 감정의 해소를 통한 관계의 재정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 지옥이 한국적으로 변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인도불교의 지옥이 중국을 거쳐 한국화된 과정이라면, 이제는 기독교의 선악과 징벌의 지옥관이 ‘한과 해원’의 구조 속에서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망각의 영역으로 밀려났던 ‘지옥’이 새롭게 기억의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과 해원’의 구조는 인도도 중국도 아닌 한국적 특색이기에, 서양과 기독교의 문화와 지옥관은 ‘한과 해원’속에서 한국적 변용을 거쳐야 한다. 그럴 때, 한국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부교수

1. 들어가기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는 동남아시아 문화의 핵심 코드이자,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의 문화 코드이기도 하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기에, 한국 역시 인도불교의 문화 DNA를 간직하고 있다.

인도불교는 인도라는 종교, 사회, 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 속에서 발전한 다양한 문화 코드를 담고 있다. 인도인들의 종교관, 세계관은 물론 신화 구조가 주변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한국 역시 인도의 다양한 문화코드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문화를 발전시켰다. 인도문화의 한국적 변용 혹은 해석이라고 해도 좋을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도문화의 한국적 변용은 다시 중국이나 그 주변국으로 역수출되거나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문화의 원류로 작용했다.¹⁾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시아의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서양의 팝음악을 받아들여 발전시켜 이를 역으로 수출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한류라고 하는 것은 문화 플랫폼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드라마, 음악, 영화, 의식주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은 문화의 수용자와 생산자, 보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문화정체성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문화 코드가 무화되고, 새로운 문화코드가 정착되기 전 과도기적 상황에서 문화의 수용, 생산,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전통 가치를 폄훼하던 시기를 지났지만, 무엇이 우리의 전통인지, 그 전통은 어떤 문화적 배경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동시대인들이 갖는 시대인식과 가치, 그리고 비전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은 가치에 대한 확일적 문화풍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비전 또한 근시안적이며, 편협한 경제적 풍요로움에 매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마치 객관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신기루를 쫓고 있다. 주관적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신기루와 같은 객관적 행복을 쫓고 마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또한 문화라면 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코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DNA속에 각인된 문화코드와 현실의 문화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이라는 문화 플랫폼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불교의 지옥관을 중심으로 지옥이란 개념이 어떻게 한국에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가능하고, 또한 면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글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를 남긴 채 진행하고자 한다.

고찰하고자 한다. 인도불교에서 형성된 지옥관이 티벳,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적 지옥관이 형성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해석되고 변용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거칠게나마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기독교적 지옥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문화 콘텐츠로서 인도불교 지옥관의 한국적 수용과 변용

인도불교의 세계관은 삼계설을 기반으로 한다.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지옥이나 아귀, 아수라, 천신의 세계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지옥은 무간지옥을 비롯해 여덟가지 지옥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과 함께’와 같은 웹툰과 영화로 재해석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도불교 신화, 특히 지옥이 어떻게 한국에 수용되었고 재해석되어 문화 콘텐츠로서 기능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2.1. 인도불교의 지옥관

인도불교는 기본적으로 인도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발전하였다. 물론 인도의 전통 종교인 바라문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인도 전통문화의 극복과 새로운 비전의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설정이 없다. 물론 천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곳에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윤회관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²⁾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해지면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불교에서 야마(Yama)라는 지옥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이 야마는 베다시대의 신격이다. 이 신격이 염라대왕이다. 염라는 한국 문화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신격이다. 하지만 야마가 베다 기원의 신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신은 베다 종교에서 기원해서 불교 신전에 자리하다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토착 문화와 결합하면서 재구성되어 사후 세계에서 죄와 벌을 심판하는 존재로 알려졌으며, 한국으로 전래되었다.(유성욱 2016: 375)

야마는 죽음의 신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교의 마라(Māra)와 비교되는 경우도 있다.³⁾ 하지만 마라는 욕계(kāma-dhātu)의 최상위 천계인 타화자재천의 주신으로서 야마와는 다른 존재이다.⁴⁾

2) 우리의 단군조선에 대한 기술에서 보이는 천계는 윤회관과는 거리가 없는 세계관이다. 천계와 인간계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은 상호 소통하는 관계로서 천인이 지상에 내려와 지상과의 관계를 통해 이상적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상의 존재가 죽어서 천계에 태어난다는 것과 같은 개념, 즉 윤회관에 근거한 세계관은 불교가 전래되고 난 뒤에 형성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Alex Wayman(1959, 44-73)

초기불교에서 지옥을 언급한 경전이 있다. 그 경전은 Majjhima Nikaya III권, 130번 경인 Devadūta sutta이다. 지옥의 수장인 야마와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소개되어 있다. 우선 이 경전에서 지옥(niraya)에 가는 이유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짓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샷된 견해를 지녀 사견업(micchādīṭṭhikamma, 邪見業)을 짓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성자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아귀의 세계에 태어난다. 또한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성자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다. 또한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성자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⁵⁾

경전에서는 아귀, 축생, 지옥이란 세계, 즉 삼악취(三惡趣)에 태어나는 원인으로 ① 신구의(身口意)로 악행을 행하고, ② 성자를 비난하고, ③ 잘못된 견해를 갖고, ④ 그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잘못된 견해, 즉 사견(邪見)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볼 수 있다. 결국 사견을 갖고 있기에 신구의로 악행을 저지르고, 성자를 비난하게 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지옥의 옥졸들이 그를 붙잡아 야마왕, 즉 염라대왕에게 데려가게 된다. 그러면 야마왕(Yama-rāja)은 살아있을 때, ‘저승사자(deva-dūta)⁶⁾를 보지 못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심문을 시작하게 된다. 저승사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⁷⁾

<표 1> 저승사자의 유형

첫 번째 저승사자	갓난아기가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
두 번째 저승사자	사람이 여든이나 아흔이나 백 살이 되어 늙어서 서까래처럼 굽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이가 부서지고 사지에 검버섯이 핀 것
세 번째 저승사자	중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며,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드러누워 있는 것
네 번째 저승사자	죄를 지어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칼로 목이 베이는 것
다섯 번째 저승사자	죽어서 부패한 시체

4) 야마신의 성격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유성욱(2016)의 논문이 상세하다.

5) MN.III, 178 ; 전재성 역(2009), 1420-1421

6) devadūta는 저승사자도 되지만, 천사(天使)로도 번역된다. 신의 심부름꾼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승사자는 선행을 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7) 전재성 역(2009), 1,421-1,423.

결국 저승사자는 생노병사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노병사의 특징, 그리고 죄를 짓는 자가 받는 벌을 통해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면 자신도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선업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악업이 초래하는 고통을 직시하여 선업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며, 그 과보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이후 지옥지기에 의해 형벌이 가해지게 된다. 이 형벌은 지옥에 가기 전에 받게 되는 예비 형벌에 해당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2> 지옥에 가기 전 예비형벌의 내용

시뻘건 쇠꼬챙이로 양손과 양발을 찌르고, 가슴 한복판을 찌른다.
도끼로 피부를 벗겨낸다.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 까꾸로 짝는다.
마차에 매어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땅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숯불 산을 오르내리게 한다.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가마솥에서 삶는다.

이후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지옥은 대지옥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지옥과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소개된다.⁹⁾

8) 대림스님 역(2012), 370-371.

9) 대림스님 역(2012), 370-375.

<표 3> 지옥과 형벌의 내용

대지옥 (mahāniraya)	사각형의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곳에서 화염이 솟아오른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대지옥의 동쪽문이 열리면 빠져나온다.
큰 오물지옥 (mahanto gūthanirayo) ¹⁰⁾	입에 바늘을 달고 있는 생명체가 피부, 내피, 살, 근육, 뼈를 자르고 골수를 먹는다.
뜨거운 재로 된 지옥 (mahanto kukkulanirayo)	석탄과 같은 것이 타고 난 뜨거운 재로 가득한 곳에서 고통스럽고 살을 에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큰 가지나무 지옥 (mahantaṃ simbalivana)	지옥의 높이가 일 요자나이고 열 여섯 손가락 크기의 가시는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고, 화염을 내뿜고 작열한다.
큰 칼잎나무 지옥 (mahantaṃ asipattavana)	앞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른다.
큰 양젓물 강 (mahatī khārodakā nadi)	강물에 쓸러갈 때, 지옥지기들이 갈고리로 끄집어 묻는다. ① ‘무엇을 원하는가?’ ‘배가 고프니다.’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는 쇠꼬챙이로 입을 벌려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는 철환을 입에 넣는다.’ ② ‘무엇을 원하는가?’ ‘목이 마릅니다.’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는 쇠꼬챙이로 입을 벌려 시뻘겋게 타고 푼푼 끓는 구리 물을 입에 넣어 넣는다.’

이상 여섯 가지의 지옥을 차례로 거치면, 다시 대지옥으로 던져 넣어 고통을 받게 된다. 이상이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다. 한편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사리뿔따와 마하목 갈라나존자를 비방한 꼬깔리까 비구가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이 나온다. 그가 떨어진 지옥은 홍련 지옥(paduma-niraya)이다. 홍련지옥에서의 수명은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십만 년이라고 헤아리기 어렵다¹¹⁾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현실세계에서 받는 형벌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현세에서 죄를 지은 자가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을 그대로 사후세계에 적용시킨 결과로 이해된다. 이해를 위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10) gūtha란 대변을 의미한다. 그래서 gūthaniraya는 똥으로 가득찬 지옥을 말한다.

11) SN.I, pp.149~152. 성자를 비방한 과보로 가는 지옥이다. 살아서는 온몸에 겨자씨만 한 크기의 종기가 생겨나서, 콩알만 해지고, 대두콩만 하게 커진 뒤, 대추씨 만큼 커지고, 마지막에는 칠엽수 열매만 하게 커지고, 그 종기가 터지면서 피와 고름이 흘러 죽게 된다.

12) 주호민 작가의 『신과함께』에서 인용.



홍천사 시왕도의 도산지옥. 1926년.



화암사 시왕도의 화당지옥. 구례 회암사 소장.

[그림 1] 홍천사 시왕도의 도산지옥

[그림 2] 화암사 시왕도의 화당지옥



13)

[그림 3] 석애지옥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Mahaidukkhakkhandhasutta)」에 보면, 당시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던 형벌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조건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가택을 침범하고, 약탈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매복했다 습격하고, 남의 부인을 폭행한다. 그러면 왕은 그들을 붙잡아 여러 가지의 형벌을 가한다. ① 채찍으로 때리고 ② 몽둥이로 때리고 ③ 곤장으로 때리고 ④ 손을 자르기도 하고 ⑤ 발을 자르기도 하고 ⑥ 손발을 함께 자르기도 하고 ⑦ 귀를 자르기도 하고 ⑧ 코를 자르기도 하고 ⑨ 귀와 코를 함께 자르기도 하고 ⑩ 두개골을 자르고 뜨거운 쇳덩이를 넣어 죽이고 ⑪ 살점을 떼어내고 모래로 씻어내어 소라모양으로 빛나는 해골을 만들어 죽이고 ⑫ 막대기로 아가리를 벌리게 하고 귀를 뚫어 죽이고 ⑬ 몸을 기름에 적서 불 위에 태워 죽이고 ⑭ 손에 기름을 적서 불로 태워 죽이고 ⑮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피부를 벗겨 스스로 밟게 하여 죽이고 ⑯ 상반신의 피부를 벗겨 하반신에 입혀 죽이고 ⑰ 양 팔꿈치와 양 무릎에 쇠고리를 채우고 철봉으로 고정하여 사방에 불을 놓아 죽이고 ⑱ 양쪽의 갈고리를 잡아당겨 피부와 살과 근육을 찢어 죽이고 ⑲ 동전 모양으로 살점을 떼어내어 죽이고 ⑳ 신체를 흥기로 찌르고 회즙을 넣어 분리시키고 뼈만 남겨 죽이고 ㉑ 양쪽 귓구멍을 철봉으로 뚫고 그것을 회전시켜 죽이고 ㉒ 외피

13) 『월간불광』, 「우리가 만든 악업의 세계, 지옥」 2014년 7월(<http://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0>) “두 개의 커다란 너럭바위 사이에 끼워져 압사당하는 고통을 받는 지옥. 야차가 바위 위에 올라가 도르레 줄을 놓는 시점을 호령하고 있다.”

를 자르고 뼈를 절구에 갈아 모발에 싸서 짚으로 등글게 한 발판처럼 하여 죽이고 ㉔ 뜨거운 기름에 끓여 죽이고 ㉕ 개에게 먹히게 해서 죽이고 ㉖ 산 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㉗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면, 그 때 그들은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 떨어진다.(전재성 역, 2009: 218~219. 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넣은 것임.)

위의 형벌의 내용은 지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현실에서 지은 죄를 현실에서 합당하게 받지 못했거나 벌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에 대한 관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2.2. 지옥관의 전래와 변용

인도불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관념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다. 하지만 획기적인 발전은 아마도 중국으로 전래된 뒤가 아닐까 싶다. 앞서 보았듯이, 인도불교 문헌에서 지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만, 도상학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티벳과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티벳의 빈교, 중국의 도교, 그리고 한국의 무속신앙과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점을 중국과 한국으로 좁혀서 지옥에 대한 스토리의 전개를 잠시 살펴해보도록 하자. 우리들이 사찰에 가면 명부전이란 전각을 보게 된다. 명부전에는 익숙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옥을 주관하는 왕들을 보게 된다. 그들을 시왕(十王)이라고 한다. 시왕(十王)은 사후 세계에서 인간들의 죄의 경중을 가리는 열 명의 심판관을 말한다. 이 시왕신앙의 근거는 당나라 말기인 10세기경 장천에 의해서 저술된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등에 의한다.¹⁴⁾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은 인도찬술문헌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 경전은 지옥에 대한 중국적 해석이 곁들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왕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X, 409b14~ 409c17)

<표 4> 시왕과 재판받는 시기

	시왕	재판받는 시기
1	秦廣王	第一七日
2	初江王	第二七日
3	宋帝王	第三七日
4	五官王	第四七日
5	閻羅王	第五七日
6	變成王	第六七日
7	大山王	第七七日
8	平等王	第八百日
9	都市王	第九一年
10	五道轉輪王	第十至三年

14) 김형근(2017), 69.

보통 49재를 생각해서 7×7로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에 따르면 오도전륜왕의 재판까지 3년이 걸린다.¹⁵⁾ 하지만 이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 시왕이 다스리는 지옥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시왕이 다스리는 저승 세계에 대한 묘사로서 『시왕경변상도(十王經變相圖)』, 또는 『시왕도(十王圖)』가 전해져 온다.¹⁶⁾

<표 5> 시왕과 시왕이 다스리는 지옥

	시왕명칭	지옥명칭
1	秦廣王	도산(刀山) 지옥
2	初江王	화탕(火湯) 지옥
3	宋帝王	한빙(寒水) 지옥
4	五官王	검수(劍樹) 지옥
5	閻羅王	발설(拔舌) 지옥
6	變成王	독사(毒蛇) 지옥
7	大山王	거해(鉅解) 지옥
8	平等王	철상(鐵床) 지옥
9	都市王	풍도(風塗) 지옥
10	五道轉輪王	흑암(黑闇) 지옥

그런데 이러한 시왕관이 언제부터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승과 저승이란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불교의 시왕 신앙은 인도불교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불교의 지옥관이 중국과 한국에 전해지면서 도교나 민간신앙에서 끌어와서 불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불교의 지옥관이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중국 고유의 泰山府君신앙과 결합되고, 당대에 생전의 죄업에 따라 명부의 十王에게 심판받는다라는 ‘시왕신앙’이 성립하게 된다.¹⁸⁾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형성된 시왕신앙이 민간신앙인 무속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의 민간신앙과 결부된 시왕신앙은 ‘굿’이라는 방식을 통해 심판을 새롭게 받는 방식을 발전하게 된다. 즉 굿을 받고서 시왕의 심판을 다시 받아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최초의 재판에서 하지 못했던, 유능한 변론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2.3. 지옥의 콘텐츠화

15) X, 409c20. “十齋具足。免十惡罪。放其生天(10재를 모두 갖추고, 십악의 죄를 벗으면, 그를 놓아 주어 하늘에 태어난다.)” 김자현(2019), 321에 “칠칠재는 이와 같이 의미를 더해가며 점차 민간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점차 칠칠재에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장례풍습인 100일, 1년, 3년의 재(齋)가 더해진 새로운 장례풍습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기술이 참고할 만하다.

16) 김경덕, 김영덕(2020), 533-534에 관련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표의 내용은 논문에서 제시된 표를 참고하였다.

17) 김형근(2017), 70.

18) 김기종(2016), 39.

19) 김형근(2017), 71.

지옥을 콘텐츠로 만든 대표적인 것이 주호민 작가의 『신과함께』라는 웹툰이다. 그리고 주지하 등이 이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 콘텐츠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해석된 것을 말한다. 『신과함께』에서는 시왕 중에서 일곱왕이 등장한다. 이는 7×7, 즉 49재를 바탕으로 지옥 당 7일간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관념을 적용한 것이다. 웹툰에서는 만약 일곱 번의 재판으로 끝내지 못하면 3년간의 길고 긴 시간동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각 지옥의 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양성한 존재가 지장보살이다.



[그림 4] 『신과함께』 웹툰의 한 장면



파주 보광사 명부전 지옥도

발설지옥 재판중에 나타난 지장보살 (우측) 암라대왕의 불편한 표정과 당황한 판관들.

『신과함께』에서 지장보살을 등장시킨 것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재해석한 결과이다. 즉 지옥중생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성불을 유예하겠다는 서원이다. 이를 웹툰에서는 변호사 양성기관의 설립과 그 원장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옥을 콘텐츠화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방식은 무가, 고전소설, 설화 등의 문학작품과 시왕 및 지옥의 형벌 장면을 묘사하는 시왕도, 그리고 가사 작품²⁰⁾과 같은 방식이다. 그 외에도 ‘굿’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3. 망각된 지옥과 기억된 지옥

지옥은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비극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종교마다 지옥에 대한 관념이 다른데, 불교의 경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와는 매우 다른 지옥관을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지옥에 대한 관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지옥관을 비교하여, 우리 전통에서 망각된 지옥과 기억된 지옥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지옥이 어떻게 재해석되어 문화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옥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기독교의 전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지옥에 대한 다양한 가

20) 이에 대한 논의는 김기종(2016), 39~40의 논문에서 설명되고 있다.

사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기종은 천주교의 지옥설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대응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²¹⁾

기독교의 지옥은 결과의 지옥이다. 반면 불교의 지옥은 과정의 지옥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지옥은 결과로서의 지옥으로 고정되고 확정된 지옥관이다. 반면 망각된 지옥은 과정으로서의 지옥이다. 이를 간단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망각된 지옥과 기억된 지옥

망각된 지옥	기억된 지옥
불교의 지옥	기독교의 지옥
과정으로서의 지옥	결과로서의 지옥
윤리성에 기반	믿음에 기반
지옥에서의 벗어남과 새로운 삶의 지향	영원한 고통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	신의 심판에 따라 결정

지옥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우리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형성된 지옥관념은 중국과 한국의 경우 유교적 세계관, 즉 윤리관과 불교의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결합하면서 강력한 윤리적 성격을 띠게 된다. 시왕신앙에서 보듯이 각 지옥의 왕들이 심판하는 것은 생전의 윤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앞서 인도불교의 지옥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불교의 지옥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붓다를 믿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²²⁾ 5계 나아가 10계의 준수와 관련이 된다. 5계와 10계에 더하여 유교적 윤리관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지옥관은 철저하게 윤리성에 바탕을 두게 된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지의 여부는 자신의 생전 행위, 즉 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뿐 염라를 비롯한 시왕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옥의 시왕들은 다만 행위에 대한 선악의 업을 종합하여 윤리적 판단을 할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지옥관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지옥의 절대성이 강조된다. 윤리적 가치 보다는 초월적 대상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은 신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의 지옥은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으면 석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지듯이, 지옥도 자신이 지은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다 받게 되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다시금 주어진다. 이는 불교에서 지옥의 시간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불교의 지옥은 완성된 인간으로 지향된다. 완성된 인간, 즉 깨달은 자의 삶을 지향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지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의 지옥과 옥졸들은 절대악의 세계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의 지옥과 악마는 절대악

21) 김기종(201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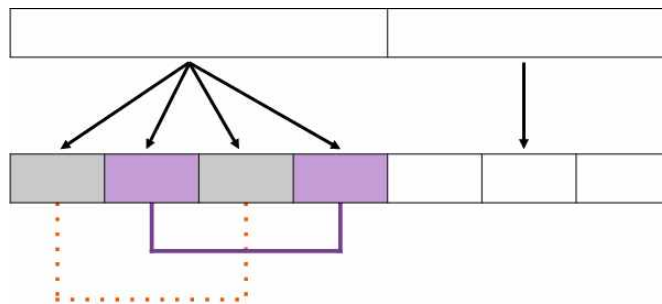
22) 청허 휴정스님의 법을 이은 연담유일(蓮潭有一)이 지은 『蓮潭大師林下錄』 「上韓綾州必壽長書」(『한국 불교전서』10, 283上)에 “불충한 사람, 불효한 사람으로 간사하고 패역한 사람은 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다. (김기종, 2016:61의 번역을 재인용함)

을 상징한다.²³⁾

지옥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해석되거나 탄생되고 있다. 일례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신과 함계철(2017, 방영됨)』과 『키아누 리브스 주연한 『Constantine』(2005), 『Gabriel』(2007), 『Solomon Kane』(2009), 『Devil』(2010), 『Legion』(2010), 톰 행크스가 주연한 『Dante's Inferno』(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일정정도 불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다소 다른 힘이 재현된 질서만 대체로 두 종교의 정의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불교적 지옥을 소재로 한 작품보다는 기독교적 소재의 작품이 훨씬 많다.

이러한 영화콘텐츠들을 통해 우리는 지옥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다른 문화콘텐츠(연극, 회화, 소설 등)를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던 또 다른 지옥에 대한 문화적 요소는 망각되다는 점은 틀림없다.

또 하나 망각된 지옥과 함께 잊혀진 우리문화의 키워드가 있다.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한국적 문화가 반영된 불교의 지옥과 기독교의 지옥이 갖는 개념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한’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정서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해원(解冤)’이다. 한은 징벌과 보복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는 원귀(冤鬼)로 캐릭터화 한다. 그리고 원귀는 지옥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해원을 통해 원귀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원귀는 징벌과 보복 대신에 용서와 수용의 태도를 통해 이른바 상생(相生)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손 the guest’의 경우 상이한 캐릭터의 등장인물로 화제를 모았다. 무속인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며, 퇴마사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귀가 된 악마를 물리치는 이야기만 나오지 한국의 전통적 정서인 ‘해원’이 나오지 않는다. 해원이 되지 못한 원귀는 악마의 특성만을 갖는다. 그것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지옥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예전에 방영되어 인기를 모았던 ‘전

23) 김정숙은 「조선시대 비일상적 상상력」이란 논문에서 “조선사회에 기독교의 전래는 지옥 및 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를 바꾸어 놓았다. … 중략 …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미치는 귀신과 요괴, 지옥 등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에 기독교를 비롯한 근대 문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김정숙(2012), 115)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설의 고향'에서의 원귀 이야기는 '해원'을 주제로 한다.

망각된 지옥은 '한과 징벌'만을 남기고, '해원과 용서'²⁴⁾를 잊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4. 결론

지옥은 사후세계의 하나이다. 또 다른 사후세계는 천국이다. 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둘은 확정적 공간이 된다. 이것은 곧 선악에 대한 관점과도 연결된다. 불교 지옥의 시왕과 옥졸들은 악마와는 다른 캐릭터이다. 하지만 기독교 지옥의 사탄과 그 무리들은 절대악의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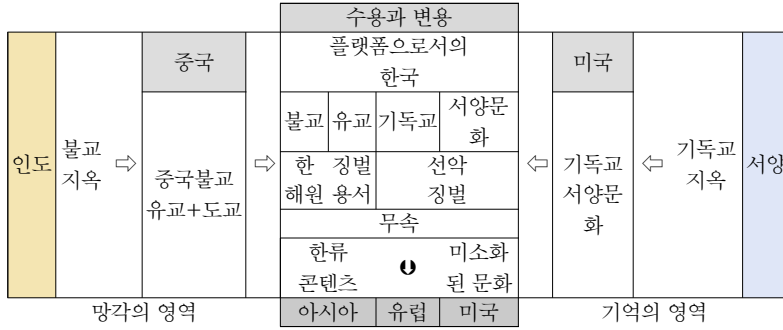
이러한 관념이 중요한 것은 그 관념이 그대로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투영되어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 한국사회는 선과 악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도 전통적 한과 해원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과 한과 보복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치의 혼돈 혹은 미정립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전통문화는 '한류'라는 방식으로 토대를 구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서양문화가 '한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지옥을 테마로 한 한류콘텐츠의 가능성은 '선악'의 구도가 아닌 '한과 해원'의 구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과 해원'은 불건전한 감정의 해소를 통한 관계의 재정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 지옥이 한국적으로 변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인도불교의 지옥이 중국을 거쳐 한국화된 과정이라면, 이제는 기독교의 선악과 징벌의 지옥관이 '한과 해원'의 구조 속에서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망각의 영역으로 밀려났던 '지옥'이 새롭게 기억의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4) 불교의 참법(懺法)의식이나 무속의 '굿'은 일종의 해원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로 이어지게 된다.

<표 7> 망각의 영역과 기억의 영역



‘한과 해원’의 구조는 인도도 중국도 아닌 한국적 특색이기에, 서양과 기독교의 문화와 지옥관은 ‘한과 해원’ 속에서 한국적 변용을 거쳐야 한다. 그럴 때, 한국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MN *Majjhima Nikāya*, PTS

SN *Saṃyutta Nikāya*, PTS

X 卍續藏

『한국불교전서』

김경덕, 김영덕, (2020) 「주제어에 따른 시왕의 디지털 콘텐츠 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4, 530-539.

김기종(2016), 「조선후기 歌辭에 나타난 지옥의 양상과 시대적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8집, 37-69.

김자현(2019), 「조선시대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변상관화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28집, 321-345.

김정숙(2012), 「조선시대 비일상적 상상력」, 『漢文學論集』 35, 95-118.

김형근(2017), “한국무속의 죽음세계 연구 : 불교 시왕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34집

대림스님 역(2012), 『맞지마니까야』, 초기불전연구원.

유성욱(2016), 「불교 야마(Yama) 신격의 기원과 특성」, 『인문과학』 제60집, 373- 397.

전재성 역(2009), 『맞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주호민(2017), 『신과함께』, 네이버 웹툰

Alex Wayman(1959), “Studies in Yama and Māra”, *Indo-Iranian Journal* 3(1)

『월간불광』(2014. 07), 「우리가 만든 악업의 세계, 지옥」(<http://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0>)

Cultural Content Changes in Buddhist Hell:

Focused on memory and oblivion, acceptance and variation

Lee, Pilwon

Hell is one of the afterlife. Another afterlife is heaven. In Buddhism, heaven and hell are not definite spaces. In Christianity, however, the two become definitive spaces. This is also linked to views on good and evil. Buddhist Hell's Ten rulers of the postmortem course (十王) and hell jailer (獄卒) are different characters from demons. But Satan and his flock of Christian hell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bsolute evil.

This idea is important because it is projected and functioning in the present era of our lives. The modern Korean society in which we live is becoming a battleground between good and evil. One side talks of co-prosperity, but the voice is not gaining strength.

The mass media also mixes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Han (恨) and Haewon (解冤) and the frame of Han (恨) and revenge. This shows that Korean society is in a chaotic or unsettled state of value. Meanwhile, traditional culture is laying the foundation in the way of “Korean Wave,” while on the other hand, Western culture, which has yet to be fully digested, is attempting “Koreanization.”

The possibilities of the hell-themed Korean Wave (韓流) content should be found in the “Han (恨) and Haewon (解冤)” structure, not in the “good and bad” structure. After all, “Han (恨) and Haewon (解冤)” is the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through the resolution of unhealthy emotions.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hat Buddhist hel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Korean one. If this is a process in which the hell of Indian Buddhism has been Koreanized through China so far, it is now necessary for the hell view of Christianity's good and punishment to be accepted and transformed in the structure of “han (恨) and Haewon (解冤).” In that case, hell, which had been pushed into the realm of oblivion, could function in the realm of memory anew.

Since the structure of “Han (恨) and Haewon (解冤)” is a Korean characteristic, not India or China, Western and Christian cultures and hell views must undergo Korean transformation in “Han (恨) and Haewon (解冤).” In that case, Korea will be able to fully perform its role as a platform.

Keywords ● Buddhist Hell, Han (恨), Haewon (解冤), Koreanization, Christian hell

■ 논문투고일: 2021. 5. 23 ■ 심사완료일: 2021. 6. 13 ■ 게재확정일: 2021. 6. 15